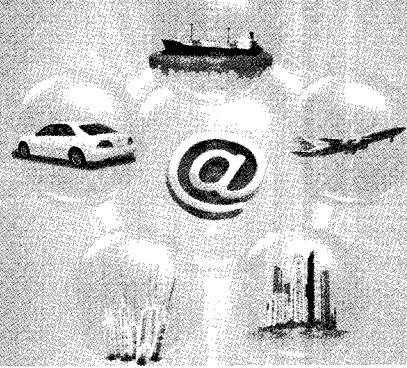


5대 주력산업, IT와 만나 강해진다



1. 5대 IT융합분야 31개 국책과제, 총 706억 원 투자

자동차, 조선, 국방, 의료, 건설 등 우리나라의 5대 주력 산업이 IT와 만나면 자동차, 선박이 지능을 갖고 로봇이 위험한 일을 대신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다양한 산업별 연구주체들은 자동차, 조선, 국방, 건설, 의료 등 우리나라의 5대 주력산업과 IT의 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총 31개 국책 연구과제를 본격 착수한다.

지식경제부(장관 : 이윤호)는 올해부터 처음 시작되는 5대 산업과의 IT융합 분야에 총 706억을 투자하며 기존의 류, 교육, 방재 등 다른 산업과의 융합까지 포함하면 총 투자규모는 약 1,5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 앞으로도 IT융합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IT와 산업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기획위원회를 운영하여 IT융합기술에 대한 중장기 청사진(로드맵)을 연내에 제시할 계획이다.
- 또한, IT와 기간산업 전문가가 함께 새로운 융합산업 육성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IT기반 융합 신산업 활성화 포럼”도 개최할 계획이다.

최근 IT산업은 성장이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자동차, 조

선, 항공 등 기간산업에 IT활용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IT가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 이번 IT융합기술개발 착수는 IT 확산을 통해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IT기반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되며
- 특히, 기존에 정통부와 산자부로 나뉘어져 있던 IT산업과 기간산업 육성 업무가 자식경제부로 통합됨에 따라 더욱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 주요 기술개발 과제(예시)

- 자동차 통합제어 소프트웨어(SW) 플랫폼 : 자동차에 부착되는 전자부품들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통합 제어 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게 되고 국제적으로도 장차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표준화(AUTOSAR) 가 진행 중

*AUTOSAR : Automotive Software Architecture(자동차 SW 관련 국제표준화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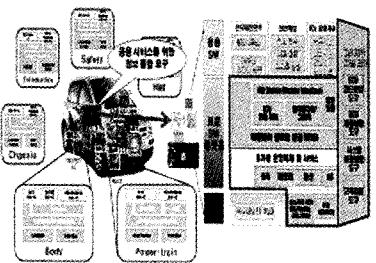
- IT가 자동차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대표적인 IT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현대자동차가 공동으로 자동차 통합제어 플랫폼 개발을 추진(성공 시 연간 1,500억원 규모 매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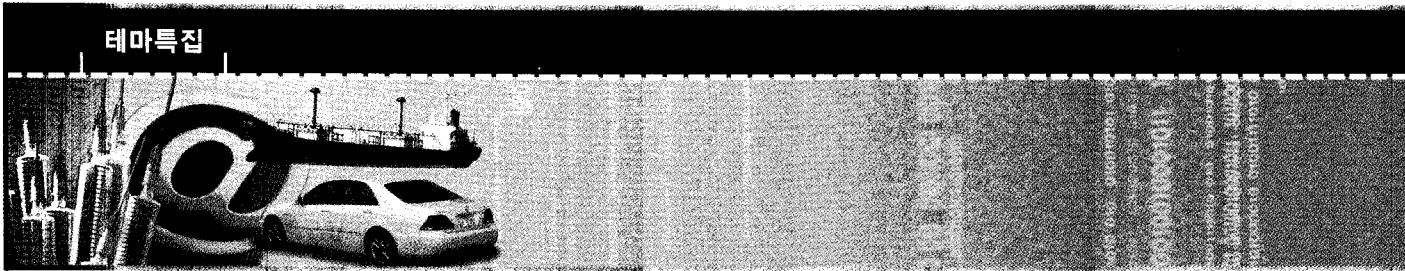
- IT기반 선박용 토탈 솔루션 : 선박건조에 오랜시간 (2~3개월)이 소요되고 3~4년의 주문이 대기해 있는 조선산업은, IT기술을 접목하여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수출증가효과(연간 20억불 규모)는 클 것으로 예상

- 대표기업인 현대중공업의 제안에 따라, 선박의 철재 구조물 등에 RFID와 위치추적 기능을 부착하여 선박건조과정을 최적화하는 선박구조물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 평균 80km에 달하는 통신선로를 재구성하고 일정 부분 무선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선박용 유무선 통신 기술 개발

- 수술 시 의료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정확한 영상정보를 제공하고 정밀한 수술은 로봇이 대신하는 '원격로봇 영상유도시스템', 기존 광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문자크기의 암세포를 조직에 찾을 수 있고 X-ray와는 달리 인체에 무해한 'THz(테라헤르츠) 내시경', 벽지로 전자파/소음 제어뿐만 아니라 데이터 전송까지 가능하게 하는 '건설-IT 융합기술' 등
- 이제는 IT가 기반이 되어 기존 산업간 장벽이 허물어지고 이종산업간 연구주체들의 공동연구가 본격화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융합 신기술들은 향후 우리의 생활과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 5대 주력산업과 IT간 융합기술 R&D 주요 과제

분야	과제명	과제개요
IT-자동차	<p>차량 전장용 통합제어 SW 플랫폼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차량내부 자동제어, 자동주행 서비스 등 안전하고 편리한 지능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동차 전자부품들을 통합 제어하는 국제표준(AUTOSAR)기반의 SW를 구현하여, 국내 전장부품업체 및 자동차 제조사와 공동으로 국제표준화 추진 • (기대효과) 해외 의존적인 자동차 전장 SW 플랫폼 및 개발도구를 국산화하여 해외 로열티 지불감소 및 수입대체 효과를 통해 2015년 이후 연간 약 1,500억원 매출 예상



테마특집

2012년 5대 IT융합 신산업 창출

차세대 IT선박

(지능형 선박, e-navigation 항해)

조선

지능형 자동차

(자동차 통합제어SW, 차량간 통신)

자동차

국방전력 극대화

(차세대 국방통신, 항공기SW)

국방

IT융합

의료기기 첨단화

(수술로봇, 테리히에라초 내시경)

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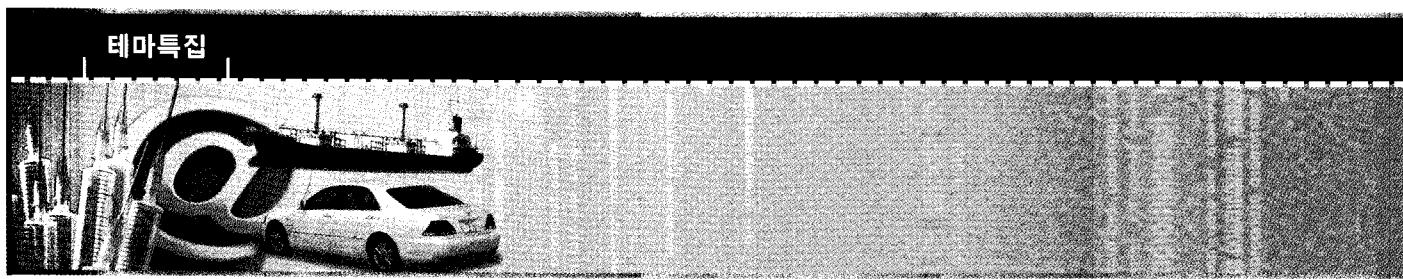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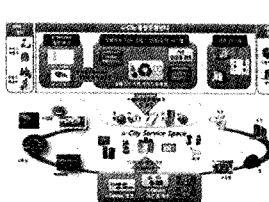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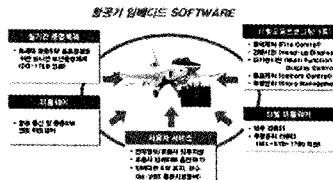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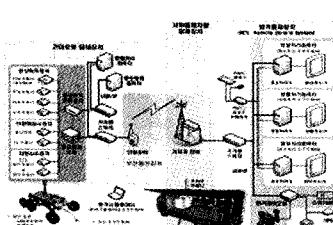
첨단 건물 시공·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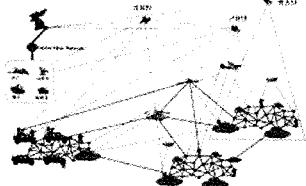
(전자파 환경개선, u-시티 SW 플랫폼)

분야	과제명	과제개요
IT-조선	IT 기반 선박용 토클 솔루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건조를 위해 조선소내 각종 자재 및 구조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작업용 헬멧에 무선 핸즈프리 기능을 장착하여 작업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u-Helmet/장구, 차세대 선박에 최적화된 유무선 통신 인프라 등 의 기술개발 추진 (기대효과) 선박건조 과정의 생산공정혁신을 통해 기존 대비 5~10%의 작업시간 단축 및 비용절감으로 연 \$10억~20억의 수출증가 예상
	E-Navigation 대응 IT-선박 융합 핵심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선박의 각종 전자장치, 전력 및 에너지 설비 등 선박 운항에 필요한 모든 장치 및 설비를 일체화한 시스템. 선박의 안전항해와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전자적 장치에 의해 선박과 육상의 항해 관련 정보를 생성, 수집, 통합, 교환 및 표시 (기대효과) 선박 항해시스템 지능화로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주도권을 확고히 하고, 태안 기름유출 사고 등 선박 관련 국가재난을 사전예방 가능

분야	과제명	과제개요
IT-의료	원격 로봇 수술을 위한 영상유도 시스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원격 로봇수술 시 안전하고 편안한 로봇 수술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확한 영상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술 로봇 팔이 유도되어 시술이 가능해지는 영상유도 시스템 개발 (기대효과) 향후 2015년 이후 모든 수술의 80% 이상이 로봇 수술이 될 전망으로, 의료수술 장비 시장의 선점효과 및 의료사고 예방을 통한 관련 민원 및 사고처리비용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주파수빗 기술 기반 Terahertz/NIR 복합 고속 분광 내시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x-ray보다 에너지가 적은 테라헤르쯔파를 이용함으로써 인체에 무해하면서도 고속의 분광영상 및 3차원 영상이 가능한 조기 암진단용 내시경 개발 (기대효과) 인체에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도 인체 투과력이 좋고 분해능력이 우수한 내시경 개발로 부작용 없이 암의 조기 진단이 가능하며, MRI, CT 등을 능가하는 시장창출도 가능
	가정용 고감도 배뇨분석 센서 모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가정에서 일반인 및 만성질환자(당뇨병, 고혈압 등)가 일상 생활 중 배뇨시 전자동 요분석 및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하여 환자가 병원에 갈 필요없이 의사가 병원에서 환자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고 간편하게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 (기대효과) 가정에서 일반인 및 만성질환자의 상시 배뇨분석은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춰 입원하지 않고 합병증 예방 및 질환 치료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 의료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전망
	사이버컴퓨팅 기반 e-organ 시스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세포-조직-장기에 이르는 인체 생리기능 단위들을 컴퓨터에서 구현하여, 약물 및 화합물 투여시 발생하는 생체내 변화, 약리 효과, 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가상의 장기(간, 심장)를 활용한 e-organ 시스템 개발 (기대효과) 국내 제약회사에서 신약개발 초기단계에서 간-심장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사전에 골라낼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약 개발기간 최대 2~3년 단축 및 신약 개발비용 1억불 이상 절감 예상



분야	과제명	과제개요
IT-건설	전자파, 음향 및 건물 환경을 개선하는 지능형 건설-IT 융합 신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전자파와 소음을 차폐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신소재 기반의 기술로서, 건물 외부에서 들어오는 불필요한 주파수 대역의 전자파와 소음을 차단하여 건물 내 원활한 통신환경을 제공하고 의료기기, 전자기기 등에 대한 오동작을 예방할 수 있는 첨단 빌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대효과) 2012년 52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국내 건설-IT 융합기술 시장을 선점하는 동시에 건설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기대
IT-국방	u-City Service용 개방형 SW 플랫폼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주거, 경제, 교통, 시설 등 도시의 다양한 구성요소에 IT인프라, 기술 및 서비스를 적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정보 제공 및 기능 실현을 위한 u-City Service용 개방형 SW 플랫폼 개발 (기대효과) 응용서비스 개발이 용이한 SW 플랫폼 제공으로 국내 u-City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얻어지는 경제효과는 2010년 약 1조원으로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국내최초 고등훈련기인 T-50에 탑재되는 임베디드 SW 및 컴퓨터를 국산화하는 것으로, 항공 비행운용프로그램, 실시간 운영체제, 미들웨어 등 개발 (기대효과) 전량 수입 중인 T-50의 SW를 30% 이상 국산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대체 효과 및 유지보수비용 절감으로 약 2조원의 부가가치 창출 예상
	항공기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네트워크 기반 다목적 견마형 로봇기술 개발	

분야	과제명	과제개요
IT-국방	차세대 전술 국방통신 원천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고속의 헬리콥터(300km/h)에서 통신이 가능하며 전투상황에서도 초고속(400Mbps) 동영상 정보공유가 가능하고, 20km 이상의 통달거리, 자동으로 망을 구성/복구/최적화하는 망 생존성이 극대화된 차세대 국방통신 시스템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 (기대효과) 기존 전술국방 통신장비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왔던 반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앞선 와이브로 기반의 국산기술로 차세대 국방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수입대체 및 이를 이용한 신규시장 창출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

3. 5대 분야별 주요 참여기관 현황

융합분야	주요 참여기관	지원규모(백만원)
자동차	• 현대자동차,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건국대, 한국정보통신대, KTF, KT로지스, 네이버시스템, 휴메이트, 아이티텔레콤 등	7,900
조선	• 현대중공업,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해양대, 한양대, 포스텍, SK텔레시스, 코리아컴퓨터, 파나시아, 지노스, 대양전기공업, 비트밸리, 산동디지텍 등	5,000
국방	•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삼성탈레스, MDS테크놀로지, 도담시스템스, 코츠테크놀로지, 넥스원퓨처, 프롬투정보통신, 텔로드, 휴메이트, 심네트, 로보터스, 우리별텔레콤, 엘트로닉스, 로보큐브테크 등	17,220
의료 (IT-BT-NT 포함)	• 생명공학연구원(KRIBB),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전자부품연구원(KETI), 한국표준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카톨릭의대강남성모병원, 서강대, 연세대, 전남대, 부산대, 성균관대, 서울대, 한국정보통신대, 강원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배재대, 고려대, KTF, LG이노텍, 텔트론, 인포피아, 에스디, 코어메드, 테크바일, 대덕전자, 헬스피아, 릿치마이크로웨이브, 엑스엘, 케이맥, 쓸리테크, 휴메이트, 솔루션텍, 신우전자, 디앤티, 이미지랩 등	37,280
건설	• 한국공간정보통신,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핸디소프트, 메타빌드, 비트컴퓨터 등	3,200
계		70,600